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자 료</h1> </div>				
 금융감독원					
보도	2021.7.12.(월) 조간	배포	2021.7.9.(금)		

책 임 자	금용위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(02-2100-2690)	담 당 자	차 영 호 사무관 (02-2100-2692)
	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김 은 조(02-3145-7700)		김 철 호 부국장 (02-3145-7702)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(02-3145-7290)		이 목 희 부국장 (02-3145-7292)
	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민 봉 기(02-3145-7860)		김 종 근 팀 장 (02-3145-7862)

제 목 :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·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「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**감사 시행 초기 3년** 동안은 **제도 위주**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·감사인이 **변화된 제도에** **연착륙**하도록 **지원**하겠습니다.
- ②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**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** 및 **감리 모범사례**를 발굴하여 **시장에 안내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1 추진 배경

- ☐ 외부감사법 개정^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^{*}에 대한 외부감사가 '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
*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·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

※ '18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감리는 미 실시(참고1)

<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>

- ① (별도 기준) 자산 2조원 이상('19년), 5천억원 이상('20년), 1천억원 이상('22년), 기타('23년)
- ② (연결 기준^{*}) 자산 2조원 이상('23년), 5천억원 이상('24년), 기타('25년)

*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('21년 4/4분기)

- ☐ 이에 따라, '19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.

- 기업과 감사인들은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.

➡ 이에,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·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「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2 「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」 주요 내용

가. 계도기간 부여

-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~3년*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“제도 위주”로 감리를 운영하겠습니다.

* 개별·별도재무제표 : 3년간 제도위주 운영 / 연결재무제표 : 2년간 제도위주 운영

<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>

[개별·별도 재무제표]

자산 규모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			
2조원 이상	검토	감사 의무화													
		제도 위주				본격 감리									
5천억원 ~ 2조원	검토	감사 의무화													
		제도 위주				본격 감리									
1천억원 ~ 5천억원	검토				감사 의무화										
					제도 위주			본격 감리							
1천억원 미만	검토					감사 의무화									
						제도 위주			본격 감리						

[연결 재무제표]

자산 규모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2조원 이상	-					감사 의무화*					
						제도 위주			본격 감리		
5천억원 ~ 2조원	-					감사 의무화*					
						제도 위주			본격 감리		
1천억원 ~ 5천억원	-							감사 의무화*			
								제도 위주			본격 감리
1천억원 미만	-							감사 의무화*			
								제도 위주			본격 감리

* '21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

나.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

<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>

- (감리 착수) ①재무제표 감리* 과정에서 고의적인**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

*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 미 실시, **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 실시

- ②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합니다. (참고2)

- (감리 범위)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*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.

*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

-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*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.

*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(예 :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,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)

- (감리 조치)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‘개선권고’ 위주로 조치하되,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.

-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(고의, 중과실, 과실)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,

-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.

< 감사인 감리시 >

- (감리 범위)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,

-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*합니다.

*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

※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

- (감리 조치)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'개선권고' 조치를 합니다.

다.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

<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>

- (감리 착수)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*에 더해 '중과실'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합니다.

* ① '고의'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
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

- (감리 범위)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, 운영,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.

-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*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.

*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(예 : 운영 테스트의 대상,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)

- (감리 조치)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'중과실'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.

-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.

< 감사인 감리시 >

- ☐ (감리 범위)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, 제도기간과 동일하며,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제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*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.

*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 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

- ☐ (감리 조치) 제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'개선권고' 조치를 하고,

-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 양정기준*에 따라 조치합니다.

*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,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

3 기대 효과

- 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·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☐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4 향후 계획

- ☐ 금번에 마련한 「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」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.
- ☐ 또한,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.

[참고1]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

[참고2]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- (검증대상) '검토'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*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

* 점검결과, 미비점 및 시정계획,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

- '감사'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, 구매,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(설계와 운영)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

- (수행절차) '검토'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

- '감사'는 내부통제 관련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 또는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

<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·감사 비교 >

구분	검 토	감 사
검증 대상	<p>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</p>	<p>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(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)</p>
수행 절차	<p>질문 위주 (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)</p>	<p>통제절차의 재수행, 문서검사, 관찰, 질문</p>

내부회계관리제도(ICFR) 감리 대상